

No. 58

2006 FEBRUARY

(재(財)) 국제노동재단

우편번호101-0051 동경도 지요다구 간다 진보초 3-23-2 금명빌딩 5F

TEL. 03-3288-4188 FAX. 03-3288-4155

URL:<http://www.jilaf.or.jp> E-mail:[info@jilaf.or.jp](mailto:info@jilaf.or.jp)

## 국제 포럼 개최

###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노동운동 경험-

1월 12일부터 25일의 일정으로, 오세아니아팀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ACTU 로부터 4명, 뉴질랜드 NZCTU로부터 2명의 노동조합 리더를 초대하여, “글로벌화와 노사 관계-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도전-”이라는 테마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오스트레일리아팀으로부터는, 동국이 진행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대하여 ACTU가 대규모의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이쿠사와(生澤) 국제국장의 보고에서도 일본의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에 대한 연합의 ACTU 캠페인 협력요청이 소개되었다. 뉴질랜드팀으로부터는, 동국에서의 규제완화와 노동분야의 개혁으로 인한 영향 및 재검토등이 보고되었다. 그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회장에는 많은 노동조합관계자가 출석했다.

호주는 자유·국민당연합에 의한 보수 정권으로, 반노동조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조건 결정을 개별 계약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하거나, 조직화를 위한 사업소의 액세스 제한 제기등이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도 규제완화,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규제완화와 사회적인 규제완화를 구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위의 2개국의 보고를 통해 새삼 배울 수 있었다.

포럼의 기록은, 가까운 시일내에 JILAF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뉴질랜드의 노동운동 경험을 보고하는 NZCTU본부 부회장 Helen Kelly씨.

## ITUC(인도네시아 노동조합회의)가 ICFTU에 가맹 승인

2005년 12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서 개최된 ICFTU 제124회 집행위원회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회의(이하ITUC)의 가맹이 승인되었다. JILAF에서는, 2003년 2월 ITUC 결성시에 중심이 되었던 4개 산별에 대해서도 GUF(국제산별)과 협력하여 지원을 해왔으며, 2004년도부터는 ITUC로 단일화하여, “노조기초교육” “노조기구” “최저임금” “조합운영” “단체교섭과 노동협약”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작년 9월에 발표된 2004년 노동조합기본조사(정부, 경영,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는 3자구성 위원회의 노조대표자 비율은 이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의 결과에도, 내셔널센터로서 가장 많은 숫자를 남기고 있어, ICFTU가맹과 더불어 크게 전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11월 14일부터 16일에 걸쳐 사마린다(Samarinda)에서 ITUC/JILAF의 “단체교섭과 노동협약”세미나가 실시되어, ITUC가 작성한 “노사관계와 노동협약~과제 해결을 위한 안내”를 근거로, 직장 의견 집약~교섭~협약 체결 등 각단계에 있어서의 노조활동의 기본, 법적근거, 주의점및 노동협약의 구조, 과제등에 대해 열심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JILAF에서는 스즈키(鈴木) 현지지원 사업부장이 참가하여, 일본의 노동협약 개정 교섭에 대해 소개했다.

## ICFTU-APRO/ILO 아동노동지역 회의에 참가

2005년 12월 20일부터 22일에 걸쳐서, 스리랑카·콜롬보에서 ICFTU-APRO아동노동지역회의가 개최되어 ICFTU-APRO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13개국 14조직으로부터 30명이 모였다. 본회의는 2004년 12월 개최된 ICFTU 세계대회 및 2005년 2월 개최된 ICFTU-APRO 지역대회의 결의를 얻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재검증한 후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각 내셔널센터로부터는, 각국에서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아동노동이 인정되고 있는 사실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및 ILO등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ICFTU-APRO/ILO/IFBWW/연합/JILAF로부터는, 각각의 대응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JILAF로부터는 네팔NTUC, 인도INTUC과 협동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소개했다.

끝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내셔널센터/각 직장 레벨에서 행동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ICFTU-APRO가 중심이 되어 이번과 같은 지역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속에 아동노동문제를 포함시킬 것 등이 채택된 후, 회의는 끝났다.

JILAF는 계속해서 비정규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 각 내셔널센터에 대해서는, 각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취하며, 이번에 책정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처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참가자들의 추진사업에 대한 발표.

## 신조합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공동개최-타이

2005년 12월 16일(금) ~18일(일)의 3일간, 타이·파타야(Pattaya)에서, 현지지원사업 워크숍을 IMF-JC과 공동개최했다. IMF-JC로부터 국제국의 이와이 신야(岩井信哉)씨, JILAF로부터는 이노우에 도모타카(井上友孝) 현지지원사업부 그룹리더가 출석했다.

이번의 대상 조직이 된 Confederation of Thai Electric Appliances, Electronics, Automobile and Metal Workers(이하TEAM)는, IMF-JC의 타이 카운터파트에 해당된다. 방콕의 동쪽에 있는 사뭏프라칸(Samut Prakan)현에 거점을 두고, 촌부리(Chon Buri)현이나 라용(Rayong)현을 포함시킨 동부연안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회장은 내셔널 노조의 Mr.찰리(Charlee Loiyoong), 사무국장은 이스즈 노조의 Mr.Mongkol Tanakanya 가 역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합활동의 경험이 적은 신입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룹 워크를 통해서 조합의 의의·역할등을 학습했다. TEAM가맹 조합중에서 합계 16조합·43명이 출석하여, 각 참가자가 협력하여 과제에 임했다. TEAM은, 조직률이 2-3%로 노동운동이 약한 타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추진, 신규결성·가맹 조합이 뒤를 이었고, 조합원도 5만명 가까이에 도달했다. 타이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편, 물가의 상승이 현저하고, 그 영향으로 일반노동자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노사분쟁도 예년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TEAM이 앞으로의 노동운동을 견인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JILAF의 현지지원사업은 보통 내셔널센터를 지원하지만, 타이에서는 장래의 내셔

널센터 통일로 연결되도록, 유력한 국제산별 (GUFs : Global Union Federations) 과 협력하여 현지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는 4개 조직을 대상으로 각각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내년도도 같은 방침으로 임하고자 한다.

▲세미나 종료후 참가자 일동 기념촬영.

## 회랑

아라이 쓰토무(新井 力)

### PROFILE

연합종합국제국장

2000년 8월~2005년 8월

연합유럽 사무소장

2005년 10월부터 현직

연합의 홈 페이지

<http://www.jtuc-rengo.or.jp/>

## “JILAF에 기대하는 것”

금융경제주도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세계에 빈곤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과 기업에게만 부가 편재하는 가운데, 기아, 아동노동, 인신 거래, 강제노동등,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 노동조합이 추진해야 할 책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를 인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과정에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JILAF는 1989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의 노동조합을 카운터파트로 하여, 노사관계, 단체교섭, 노동안전위생, 노동법제등의 노동자교육 활동에 추가하여, 아동노동박멸, 여성의 참여 촉진, 보건의료, 환경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주지 하는 바와 같습니다.

ICFTU(국제자유노연), ILO(국제노동기관),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등을무대로 전개하는 연합의 국제활동과, JILAF가 손수 추진하고 있는 도상국 지원 활동은 이른바 자동차의 두개의 바퀴로,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양자의 활동이 한

총 더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개발협력 활동의 의의와 성과를 사회에 널리 인식시키고, 보다 많은 ODA예산이 국제노동운동에 의한 개발 협력에 주어져,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실시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No. 10

## “쓰나미·정신적 상처·카운슬링·프로젝트”

일본교직원조합

서기장 나카무라 유즈르(中村讓)씨

2004년 12월 26일, 스마트라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가족의 목숨을 빼앗았다.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외부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2005년 5월 이후, 일본교직원조합은 티 (교육인터내셔널)과 함께,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의 복구지원 경험을 살려, 피해민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완화시키는 노하우를 현지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마음의 상처·카운슬링·프로젝트”를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아체(Aceh)에서 실시했다. 프로젝트에서는 현지의 필요성에 맞추어 특별 프로그램을 작성,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중심적 역할을 짊어지는 코어 트레이너 양성 연수를 실시. 나아가 코어 트레이너를 중심으로 각 피해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카운슬링 연수를 추진했다.

“피해지에 물자를 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원” 또, “과거의 재해를 교훈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여, 방재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학습했으면 한다”고 나카무라(中村) 서기장은 이야기한다.

교직원들은, 평소부터 아이들과 직접 접하는 가까운 존재다. 마음의 상처·카운슬링·프로젝트는, 정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강력한 사다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도, 많은 쓰나미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교직원의 케어로, 피해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누그러지고, 아이들이 참된 웃음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조사홍보부 가토(加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에 아시아지역의 EI 가맹조직을 모은 “쓰나미 심포지엄” 에서 보고하고, 방재교육및 재해 발생후의 정신적인 케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에서의 대응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깊이 했다.

▲스리랑카에서의 카운슬링 연수 풍경

일본교직원조합의 HP: [www.jtu-net.or.jp](http://www.jtu-net.or.jp) EI (교육인터내셔널)의 HP: [www.ei-ie.org](http://www.ei-ie.org)

## 3개국 (일중한) 의 심포지엄

JILAF에서는 1999년부터 한국국제노동재단(KOILAF)과 정기교류를 하고 있다. 2005년 11월, 아지마(阿島)전무이사를 비롯한 3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KOILAF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정부기관등에서, 최신의 사정을 청취하고, 동시에, “한국·중국·일본에서의 경제협력과 노동분야의 과제”라는 테마의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지금까지는, 2개 조직간의 교류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China Workers'Cent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CWCIE)도 참가하여 3개 조직이 참가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연구자의 발표와, 앞에서 언급한 3개 조직의 보고가 있었다. 북동아시아에서 기업의 이전등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노동이동및 고용의 아웃소싱 등 노동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상호 관련이 있는 문제및 공통의 과제 해결을 향한 협력강화의 중요성등이 지적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및 장래의 과제등에 관한 정보교환및 의견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소중히 해 가는 것으로, 경제만이 아닌 노동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심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3개국에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는 아지마 전무 이사(사진 왼쪽).

## JILAF 달력

### ■ 활동 보고 (2005년12월~2006년 2월)

#### ● 초빙

- 오세아니아팀 (1월 12일~25일)
- 중앙아시아·러시아팀 (1월 26일~2월 8일)
- 남미팀 (2월 9일~22일)

#### ● 현지지원

- 타이TEAM(IMF-THAI)워크숍  
(12월 15일~19일) 타이(파타야(Pattaya))
  - 네팔NTUC/POSITIVE 코어 트레이너 육성회의 및 학교  
모니터링  
(12월 16일~23일) 네팔(카트만두(Kathmandu), 포카라(Pokhara))
  - ICFTU-APRO 아동노동지역회의  
(12월 18일~24일) 스리랑카(콜롬보(Colombo))
  - 베트남 VGCL/TUSSO조정 회의  
(1월 15일~20일) 베트남(하노이(Hanoi))
  - 필리핀TUCP 노동안전위생(POSITIVE)모니터링  
(1월 24일~28일) 필리핀(마닐라(Manila), 세부(Cebu))
  - 인도네시아TUC POSITIVE도입 세미나  
(2월 11일~19일) 인도네시아(푼각(Puncak))
  - 방글라데시ICFTU-BC 프로젝트·폴로 업  
(2월 12일~25일) 방글라데시(다카(Dhaka), 쿨나(Khulna))
  - 중국ACFTU 프로젝트·폴로우 업  
(2월 14일~18일) 중국(베이징(Beijing), 항저우(Hang Zhou))
  - 타이UNI-TLC 및 파키스탄PWF 워크숍  
(2월 16일~23일) 타이(방콕(Bangkok), 싱부리(Singguri)), 파키스탄(카라치(Karachi))
  - 동티모르 노조 기초세미나 (3월 상순 예정)
  - 중국 POSITIVE 모니터링 (3월 하순 예정)
- #### ● 기타
- 고용대책조사 “NPO에 의한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국내 청취 조사

(12월 22일) 재단법인 “일본자연보호협회”

- 제2회 국제노동문제연구회 “글로벌화 속에서 유럽사회 모델이 지닌 문제”

(1월 12일) 총평 회관

- JILAF국제 포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노동운동 경험”

(1월 18일) 일본교육회관

- 고용대책조사 “NPO에 의한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1월 23일~2월 3일) 네덜란드(암스테르담(Amsterdam))

- ICFTU-APRO/JILAF공동주최 젊은 여성세미나

(2월 5일~10일) 타이(방콕(Bangkok))

○제47회 이사회·평의원회

(3월 3일) 연합

## INSIDE OUT

인사이드 아웃

JILAF에 온 이래, 귀에 익지 않는 여러 나라들과, 어느나라 언어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문자를 보고, 폭넓은 활동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JILAF의 일원이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국제노동운동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미즈구치 아키코(水口 晶子)

/JILAF스태프